

100세 시대, 5060 자격증 따기 '열풍'

평균 수명 늘고 연금 수령 시기 상승에...생계 유지 위해 재취업 지난해 50대 이상 국가기술자격응시율 15.8%...10년전의 2배

통신 관련 대기업에 30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퇴직한 박모(59)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박씨는 퇴직 후 지인의 도움으로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던 터라 보수도 적고 회사 내 입지도 좋지 않자 회사를 그만두고 1년 가까이 공부한 끝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가 그 전까진 돈을 벌어야 한다. 아직 대학생인 딸아이도 하나 있다"며 "연금 수령 시기가 되도 부부 생활비로는 부족할 것 같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3년 전 퇴직한 김모(63)씨는 퇴직 후 취득한 자격증만 해도 대여섯개나 된다.

환경 관련 직종에 근무했던 김씨는 전공을 살려 자연생태복원기사와 환경위해관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김씨는 "재취업을 위해 도서관에 다니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이라며 "도서관에 가보면 비슷한 또래의 장년층이 자격증 공부하는 걸 쉬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가끔 찾아오

는 손자들 용돈도 줘야 하니 일을 그만두긴 어렵다"면서 "자격증이 많다고 취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 가지 더 따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50~60대 자격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퇴직 후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 시험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수명 증가와 높아진 퇴직연금 수령 시기 등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자 기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160만 명 중 50대가 약 18만 명, 60대 이상은 7만여 명으로 각각 전체의 11.3%, 4.5%를 차지했다.

특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50대 이상 응시자는 10년 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초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응시자 123만여 명 중 50대는 8만3000여 명, 60대 이상은 1만2000여 명으로 각각 전체의 6.7%, 1.0%였다.

10년 사이에 50대 이상 응시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7.7%에서 두 배인 15.8%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이상 응시 인원은 9만5478명에서 25만3450명으로 2.6배가 됐다.

50대 이상의 합격률도 10년 전보다 상승했다. 10년 전 50대와 60대의 합격률은 각각 34.8%, 31.0%로 전체 합격률 36.3%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50대의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47.0%)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은 54.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53.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다른 통계로도 취업을 향한 고령층의 열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

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고령층(778만3000명) 가운데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479만4000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답한 고령층이 248만2000명(31.9%)이었다. 연금을 받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또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 절반 이상이 취업 상태였다. 연금을 수령하는 778만3000명 중 취업자는 390만8000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지역경제계 한 인사는 "연금으로만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임을 뜻한다"며 "수령의 증가와 연금 수령 시기 상승 등으로 앞으로 고령층의 취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아동기관 유공 '광주시장 표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달 3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한 '제39회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에서 아동기관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장학금, 문화예술 지원, 학습환경 개선 등 지역 내 아동 후원과 나눔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또 광주은행이 2015년 시작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71호점까지 선정됐다. 2019년부터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습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생에게 대학 진학까지 학습 지원금을 후원하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를 8호까지 선정해 후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반도체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집중"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방문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은 1일 부임 후 첫 산업 현장 행보로 광주시 광산구 소재 반도체 제조 수출업체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반도체 업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최근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데 맞춰 수출 지원과 물류 원활화 등 관세행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반도체는 국가핵심 산업이며 지역적으로도 중추적인 수출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세관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렴한 의견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향후에도 반도체 제조 수입 원자재의 신속 통관과 물류 원활화 지원 등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7.99(-32.56)
↓ 코스닥	736.10(-21.02)
↓ 금리(국고채 3년)	4.085(-0.004)
↓ 환율(USD)	1350.50(-0.40)

"고위험 첨단기술 육성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은 세미나서 제안 "자원·자본 재배치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대한상의-한은 공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투자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 자체가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이라며 "수출을 크게 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변화를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던 하나의 세계 시장이 다 쪼개지는 상황"이라며 "이 쪼개진 공급망 시장에서는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 세계 시장에 통용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각도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 최 회장의 얘기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고 수출할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청정에너지를 싸게 갖춰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자원과 자본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재배치'(Great-Reallocation)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산업, 통상, 금융정책을 통해 기존의 산업과 무역구조에 쏠린 자원과 자본을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새로운 수출 지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파고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건설 경기 반등 어렵다...내년 국내 수주 1.5% 감소"

건산연 "고금리 장기화에 자금조달 어려울 것"...주택가 2.0% 하락 전망

내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올해보다 1.5% 줄어들며 건설 경기 반등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열린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하다"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1.5% 줄어든 187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건설 수주 규모는 올해 17.3% 감소한 190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든 후 내년에도 감소세를 이

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건설 투자 규모는 260조7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부터 착공이 줄어든 데 따른 여파다.

고금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등 건설사의 자금 조달 위기가 지속되고, 전장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역시 커 전반적으로 민간 수주가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됐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며 "건설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로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이 다소 누그러졌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올해 3분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출 경직성이 강화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주택 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내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시장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내년 주택 전셋값은 올해보다 2.0%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를 프로젝트임단 '브리온' 광주서 5일 토크쇼 개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젝트임단 OK저축은행 브리온이 광주에 온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5일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에서 '렛츠 이스포츠 토크쇼'를 개최한다.

올해 '렛츠 이스포츠 토크쇼'는, LCK(League of Legend Champions Korea) 참가팀 OK저축은행 브리온이 'OK 저축은행 브리온 팬 페스타'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권익술 아나운서와 고인규 해설이 토크쇼를 진행하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브리온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선수와 팬이 한팀이 되어 치러지는 LoL 특별전, 선수단 친필 사인 유니폼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 팬 사인회 등 프리미엄 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터넷파크(https://ticket.interpark.com) 사전 예매를 통해 무료로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이스포츠경기장 홈페이지(https://www.gicon.or.kr/espo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 '미소원정대' 베트남서 의료봉사

효성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지난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인근 동나이성 김미현 수안동마을에 파견한 해외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가 현지 초등학교의 구강검진을 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과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성 임직원 총 74명으로 구성된 미소원정대는 현지 지역주민 17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초등학교 건강검진 등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효성 제공〉